

ICT 장비로 홀몸 어르신 안전 챙긴다

정읍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300가구에 안전 장비 추가 설치 홀로 노인·장애인 돌봄 체계 강화

"최신 ICT 장비로 홀몸 어르신 안전 챙긴다." 정읍시가 ICT 기술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하며 홀몸 어르신들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망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구 500세대에 ICT를 적용한 차세대 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올해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과 연계해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300가구에 추가로 응급 안전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응급 안전관리 요원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장비를 통해 감지된 화재·활동량 등의 정보를 응급 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정읍시 관계자들이 홀몸 어르신 가구에 ICT를 적용한 차세대 장비를 설치한 뒤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있다. 특히 홀몸 어르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낙상 등 건강 이상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니터가 달린 태블릿 PC 형태의 단말기로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생활 유용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첨단 장비를 확대 보급해 어르신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산불 예방·신속 진화"...익산시 산불대응센터 개소

익산시청 북부청사에 460㎡ 규모

익산시가 산불 대응체계 구축 강화와 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불대응센터'를 신축·개청했다. 지난 1일자로 개청한 산불 대응센터는 국비 등 총 8억원이 투입돼 합영읍 익산시청 북부청사에 460㎡ 규모로 들어섰다.

1층은 차고지, 2층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대기실 및 산불상황실로 꾸며졌으며 산불 진화차 4대, 산불 감시카메라 4대 등을 갖추고 산불 예방 활동 및 상황 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겨울철 산불 발생 시 방화수 동결에 따른 산불 진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의 근무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취약계층 200가구 소방시설 무상 설치

남원시가 11월 중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화재감지기, 소화기)을 무상으로 보급·설치한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설치에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소화기·화재감지기 보급을 통해 화

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남원소방서와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기초수급대상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 200가구를 중심으로 대상을 확정하고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주택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후소방시설의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 공공배달앱 "축산물도 안전하게 배달해요"

축산물품질관리원·셀바이오와 '배달의명수' 활성화 업무협약

군산시가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의 안전한 축산물 배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지난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주)셀바이오와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배달의명수 내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기능을 적용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배달앱을 통한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주)셀바이오는 식품영양제로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아이스팩과 친환경 포장지를 배달가맹점에 지원해 환경오염을 저감하게 된다.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명수에는 음식점 외에도 정육점과 꽃집, 건강원 등이 입점해 있으며 정육점의 경우 주 50건 이상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배달의명수가 소비자들에



군산시와 축산물품질관리원 (주)셀바이오가 1일 축산물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제공>

게 더 많은 혜택과 신뢰를 주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윈윈 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4년 연속 최우수

전국 농기센터 평가...포상금 2억원

고창군이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전국 농기센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전국 3위, 도내 1위)으로 선정돼 포상금 2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와 정부 정책사업 참여, 조직원 업무능력 등 3개 분야에서 심사단의 호평을 받았다.

현재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로 총 61종 75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10월 20일 기준 농기계 5769대를 임대했으며, 배달 서비스 1256대를 무료로 진행해 전년 대비 40% 늘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촌 일손 부족에 보탬을 드리기 위해 농기계임대료를 12월까지 50% 인하하고 있다.

특히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흥덕면·성내면·신림면·부안면)도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북부권 사업소가 완공되면 고창군 동서남북 어디서든 15분 이내에 농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농기계임대서비스 센터'를 완성하게 된다.

고창군농기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배달서비스 지속적으로 확대해 영농철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행복한 순창생활' 사진·수기 공모전

출산·육아 등 내용...26일까지 접수

순창에서의 행복한 생활이나 아름다운 일상을 테마로 한 공모전이 펼쳐진다.

순창군은 가족의 소중함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복한 순창생활 우리 가족은 순창에서 살아요'란 주제의 '2021년 순창군 인구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과 생활수기 2개 분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응모작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응모는 오는 26일까지 순창군 행정과 인구정책

계에서 접수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가 없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오는 12월 중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분야별 최우수상 1명에게는 9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20만원의 상금이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등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